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에 관한 예측요인*

김 희 영**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로 인해 내면적인 혼란과 갈등이 매우 커지는 반면 자기통제와 조절 능력은 약해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불균형의 정도가 심하거나 만성적이 될 때 심리적인 불안정상태가 증가되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 청소년들은 비치료적 약물을 사용하게 된다(Cho, 2000). 국내의 마약류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1998년 8,350명, 2000년 10,304명이었던 것이 2002년도에는 10,673명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사범(특히 히로뽕)의 경우가 74.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2년 마약류사범 단속자 중 19세 이하 청소년이 79명인 반면 환각물질흡입사범의 경우는 이것의 47배인 66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세 미만 흡입자의 경우 1998년 0.2%였던 것이 2002년에는 4.4%로 상승되는 등 연소자의 사용률이 증가되고 있다(Supreme Prosecutors' Office, 2003).

아직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있어 비치료적 약물 사용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청소년사망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뿐 아니라 비치료적 약물사용은 가정·학교·도래집단에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하며, 과감한 범죄로의 촉진제 역할

을 하여(Jang, 2001) 사회를 황폐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이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매년 8,500억원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손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밝혀졌다(Yang & Lee, 1995). 일단 약물에 접촉되고 난 후에는 약물의 강한 습관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결국 약물중독의 단계로 들어가 벗어나기가 불가능해지며 엄청난 투자가 있어야만 회복이 가능해진다(Kim, 1997). 따라서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의 경우 사후 대책보다는 예측된 위험요인의 조절을 이용한 사전예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의 경우 1970년대부터 규명된 예측요인을 적용, 예방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Davis, 1994; Friedman, Glickman, & Kovach, 1986). 국내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시도되었다. 2000년에 접어들어 상황관련이론수준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개인의 건강상태, 성격특성, 스트레스, 비행경험, 가정환경, 부모-자녀 관계, 학교, 친구 등의 개념들이 인과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Lee, 2000; Lim, 1999; Lim, 2002).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문헌을 근거로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요인들에 대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위험요인을 규명함

* 박사학위논문.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교신처 E-mail: yan33@hanmail.net).
투고일: 2006년 12월 29일 심사완료일: 2007년 2월 21일

으로써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에 대한 사전예방과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관련요인의 제 변인과 비치료적 약물사용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 2) 가정관련요인의 제 변인과 비치료적 약물사용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 3) 사회환경관련요인의 제 변인과 비치료적 약물사용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 4)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 예측요인을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청소년

청소년은 아동에서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적 존재로 11세부터 20세까지를 의미하며(Stuart & Laraia, 1998),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의미한다.

2) 비치료적 약물사용

비치료적 약물사용이란 법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처방된 목적과는 다른 이유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Potter & Perry, 1997). 본 연구에서는 불법적으로, 처방전 없이 흡입제(본드·가스·신나·니스), 중추신경억제제(신경안정제·진정제·수면제: 아티반·바리움·바비튜레이트·세코날), 중추신경흥분제(흥분제·각성제: 타이밍·히로뽕·나이트·암페타민), 환각제(마리화나·대마·LSD), 마약(아편·헤로인·몰핀·코카인)을 1회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상황관련이론(situation relating theory)의 서술적 관계성 조사연구이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밝혀진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

험요인들을 중심으로 약물사용을 예측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인문계와 실업계)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이다. 연구대상자는 총 1,238명이었으며,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156부를 제외한 1,082명의 자료만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성격특성

Kim과 Kim(199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5가지 하부요인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당시 Likert 6점 척도를 5점 척도로 재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부요인의 성격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 alpha 계수는 .787~.899범위였으며 본 조사에서의 Cronbach alpha 계수는 사회성향이 .8645,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이 .864, 반사회적 성격양상이 .796, 우울성향이 .738, 자아존중감이 .752였다.

2) 스트레스

Rowlison과 Felner(1988)의 DHQ(Daily Hassles Questionnaire)의 도구를 참조한 Park(2002)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최근 2개월 동안 일상생활에 대해 대상자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2002)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계수는 .6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계수는 .689였다.

3) 비행경험

Kim과 Lee(1996)가 제작한 도구 중 비행유형별 Guttman's scale를 참조한 Kwon(199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3가지 하부요인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비행의 유무에 따라 Likert 2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4) 가족의 기능적 특성

Kim과 Park(1995)의 도구를 사용, 가족에 대한 애

착(5문항), 부모감독(6문항)의 2가지 하부요인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부요인의 특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가족에 대한 애착이 .936, 부모감독이 .861이었다.

5) 부모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Kwon(1997)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도박·외도·음주·흡연·비치료적 약물사용 여부 등의 5문항을 부모 각각에 대해(총 10문항)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청소년이 많이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부 .668, 모 .831이었다.

6) 부모(주양육자)-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주양육자)-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5)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척도를 참조한 Kwon(199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4가지 하부요인 총 26문항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부요인의 특성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Kwon(1997)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각각 .65~.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방적인 의사소통 .878, 자녀에게 비위를 맞추는 형 .652, 희생형 .735, 불성실·욕박 및 평가형 .909이었다.

7) 학대경험

Straus(1980)의 도구를 참조한 Chung(2000)의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3가지 하부요인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느끼는 학대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Chung(2000)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48~.87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신체적 학대가 .854, 정서적 학대가 .857, 방임은 .811이었다.

8) 학교요인

Kim과 Park(1993)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2가지 하부요인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는 낮고, 교사와의 관계는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학교생활 만족도는 .888,

교사와의 관계는 .732이었다.

9) 친구요인

Kim과 Park(1993)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5가지 하부요인 3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도·필요도는 높고, 비행경험 친구의 수는 많으며, 비행에 대한 친구의 압력은 높고, 비행에 대한 친구의 태도는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친구에 대한 애착도 .894, 친구의 필요도 .713, 비행경험 친구의 수 .912, 비행에 대한 친구의 압력 .824, 비행에 대한 친구의 태도 .823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관련문헌의 고찰을 통해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한 후,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해당도구를 선정하였다. 그 후 학교청소년들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도구 내 문구를 대상자들이 알기 쉽게 수정·보완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3년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각급 학교장과 담임교사,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직접 배부·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8.2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대해서는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약물 사용군과 비사용군간의 각 변인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chi-square 검정과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t-test와 chi-square 검정결과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들과 비록 유의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선행연구 고찰 결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변수들을 선택하여 stepwise selection method에 의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을 예측하는 최적의 요인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082)

Variable	Category	n	%
Sex	Male	381	35.2
	Female	701	64.8
Grade	1st	379	35.0
	2nd	283	26.2
	3rd	420	38.8
Major area	An academic high school	313	28.9
	An industrial high school	768	71.0
Healthy condition	Good	432	39.9
	Normal	555	51.3
	Bad	95	8.8
Family structure	Living together with own parents	830	76.7
	With father	58	5.4
	With father & stepmother	17	1.6
	With mother	106	9.8
	With mother & stepfather	17	1.6
	Death of parents	2	.2
Inhalants use experience	With the others	50	4.6
	Have	32	3.0
CNS depressants use experience	None	1050	97.0
	Have	74	6.8
CNS stimulants use experience	None	1008	93.2
	Have	19	1.8
Hallucinogens use experience	None	1063	98.2
	Have	13	1.2
Narcotics use experience	None	1069	98.8
	Have	12	1.1
Narcotics use experience	None	1070	98.9
	Have	10	0.9

연구대상자는 총 1,082명이었으며, 이 중 남학생이 35.2%, 여학생이 64.8%이었다.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이 35.0%, 2학년이 26.2%, 3학년이 38.8%이었으며, 계열은 인문계가 28.9%, 실업계가 71.0%이었다. 건강상태는 51.3%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친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대상자가 830명(76.7%)으로 가장 많았다. 비치료적 약물사용 경험에 있어서는 중추신경억제제를 사용한 경험이 가장 많아 6.8%, 그 외 흡입제를 사용한 경험은 3.0%, 중추신경흥분제를 사용한 경험은 1.8%, 환각제를 사용한 경험은 1.2%,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1.1%이 있었다<Table 1>.

2. 개인관련요인에 따른 비치료적 약물사용군과 비사용군의 차이점

개인의 건강상태별 차이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chi^2=18.431, p=.000$) 계열($\chi^2=1.726, p=.189$)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지위비행 경험($\chi^2=4.823, p=.028$)과 재산비행 경험($\chi^2=28.956, p=.000$), 성·폭행경험($\chi^2=.00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성격특성에 있어서 정신·신체증상호소 성향($t=-7.236, p=.000$), 반사회적 성격($t=-5.651, p=.000$)과 자아존중감($t=2.755, p=.006$) 모두 비치

<Table 2> The Difference of Illicit Drug Use According to Individual-related Variables (N=1,082)

Variable	Illicit drug use		χ^2 / t	p	
	None n(%) / M(SD)	Have n(%) / M(SD)			
Characteristics	Major area	An academic high school An industrial high school	279(89.1) 704(91.7)	34(10.9) 64(8.3)	1.726 .189
	Healthy condition	Good	408(94.4)	24(5.6)	18.431 .000
		Normal	499(90.0)	56(10.0)	
	Delinquent experience	Bad	77(81.1)	18(18.9)	4.823 .028
Status offenses experience		None Have	138(95.8) 846(90.2)	6(4.2) 92(9.8)	
Personality characteristics	Fortune delinquent experience	None Have	625(94.7) 359(85.1)	35(5.3) 63(14.9)	28.956 .000
	Sexual-violence delinquent experience	None Have	325(96.7) 659(88.3)	11(3.3) 87(11.7)	19.790 .000
	Socialization traits		3.325(.599)	3.324(.648)	.023 .982
Stress of life	Psychosomatic symptoms traits		2.300(.846)	2.955(.941)	-7.236 .000
	Antisocial traits		2.418(.731)	2.854(.704)	-5.651 .000
	Depression traits		2.732(.634)	2.687(.641)	.656 .513
	Self-esteem traits		3.106(.772)	2.880(.793)	2.755 .006
			2.730(.670)	2.935(.573)	-2.926 .003

료적 약물사용군에서 높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사회성향($t=0.23, p=.982$)과 우울성향($t=.656, p=.513$)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개인이 최근 두 달 동안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t=-2.926, p=.00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Table 2).

3. 가정관련요인에 따른 비치료적 약물사용군과 비사용군의 차이검정

가족에 대한 애착($t=3.525,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부모의 감독수준($t=-.017, p=.986$)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문제행동($t=-3.147, p=.002$)과 모의 문제행동($t=-2.572, p=.01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가족구조($\chi^2=3.472, p=.748$)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주양육자)-자녀간 의사소통 중 불성실·음박·평가형의 경우($t=-4.911, p=.000$)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반면에, 개방형($t=1.147, p=.252$)과 비위를 맞추는 형($t=.457, p=.649$) 그리고 희생형($t=1.759, p=.079$)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가 느끼는 학대경험의 경우 모두가 비치료적 약물사용군에

서 높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4. 사회환경관련요인에 따른 비치료적 약물사용군과 비사용군의 차이검정

교사와의 관계($t=-2.195, p=.028$)와 학교생활 만족도($t=-2.435, p=.015$)는 모두 사용군에서 더 높은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친구에 대한 애착도($t=2.206, p=.029$)와 친구에 대한 필요도($t=-2.414, p=.016$), 비행경험 친구의 수($t=-5.521, p=.000$) 및 비행에 대한 친구의 압력($-3.349, p=.001$) 그리고 비행에 대한 친구의 태도($t=-4.026, p=.000$)는 모두 사용군에서 더 높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약물구입의 용이성($\chi^2=13.218, p=.001$)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에 관한 예측모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최종 추출된 설명변인을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개인관련요인으로는 정신·신체증상

<Table 3> The Difference of Illicit Drug Use According to Home-related Variables (N=1,082)

Variable		Illicit drug use		χ^2 / t	p
		None n(%) / M(SD)	Have n(%) / M(SD)		
Family structure	Living together with own parents	758(91.3)	72(8.7)	3.472	.748
	With father	53(91.4)	5(8.6)		
	With father & stepmother	14(82.4)	3(17.6)		
	With mother	96(90.6)	10(9.4)		
	With mother & stepfather	14(82.4)	3(17.6)		
	Death of parents	2(100.0)	-		
	With the others	45(90.0)	5(10.0)		
Family's functional characteristics	Attachment to family	3.437(.903)	3.100(.905)	3.525	.000
	Family's supervision	3.189(.795)	3.191(.854)	-.017	.986
Parent's misbehavior	Father's misbehavior	2.111(.851)	2.400(.954)	-3.147	.002
	Mother's misbehavior	1.550(.828)	1.816(.990)	-2.572	.011
Parent(rearer)-adolescent communication	Opening type	2.967(.969)	2.849(1.042)	1.147	.252
	Flattery type	2.508(.755)	2.464(.909)	.457	.649
	Sacrifice type	3.443(.968)	3.262(1.032)	1.759	.079
	Insincerity · threatness · assesment	2.114(.817)	2.545(.928)	-4.911	.000
Ill-treatment experience	Physical ill-treatment	1.808(.882)	2.187(.893)	-4.054	.000
	Mental ill-treatment	1.733(.885)	2.034(.901)	-3.203	.001
	Noninterference	2.176(.841)	2.401(.838)	-2.531	.012

<Table 4> The Difference of Illicit Drug Use According to Society-related Variables (N=1,082)

Variable		Illicit drug use		χ^2 / t	p
		None	Have		
		n(%) / M(SD)	n(%) / M(SD)		
State factor (easy buying of illicit drug)	Hard	846(94.8)	46(5.2)	13.218	.001
	Normality	498(90.2)	54(9.8)		
	Easy	201(90.1)	22(9.9)		
School factor	Relation to teacher	2.536(1.000)	2.786(1.072)	-2.195	.028
	Content with school life	2.036(.968)	2.262(1.053)	-2.435	.015
Friend factor	Affection of friend	4.080(.765)	3.860(.951)	2.206	.029
	Need to friend	1.852(.786)	2.056(.899)	-2.414	.016
	Number of delinquency friend	2.049(.850)	2.557(1.037)	-5.521	.000
	Friend's pressure of delinquency	1.299(.506)	1.591(.846)	-3.349	.001
	Friend's attitude of delinquency	1.934(.690)	2.305(.886)	-4.026	.000

호소성향과 자아존중감, 재산비행, 성·폭력비행경험이 선정되었다. 또한 가정관련요인으로는 불성실·음박·평가형 의사소통이 선정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사회환경요인으로는 친구에 대한 애착도, 비행에 대한 친구의 태도가 최종 추출되었다(Table 5).

본 연구결과 추출된 예측요인들의 예측률(% Correct Predictions)은 77.6%이며, 실제 관측된 비치료적 약물사용자 중에서 약물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 확률인 민감도(Sensitivity)는 72.4%, 실제 관측된 약물비사용자 중에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 확률인 특이도(Specificity)는 70.4%이다. 본 연구에서 비치료적 약물사용 예측요인의 -2 LL값은 657.366로 최종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도비(Likelihood Ratio)의 자유도는 7, $p < .0001$ 으로서 선정된 모든 요인과 약물사용과는 무관하다는 영가설 H_0 :

$\beta=0$ 을 기각하게 된다. 따라서 선정된 최종요인들은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Hosmer-Lemeshow 적합도에서 $p=.955$ 로 최종 예측요인들이 적합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Nagelkerke's R^2 값은 .201로 최종 예측요인들이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을 20.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본 예측요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입증되었다.

IV. 논 의

연구결과 중추신경억제제의 사용경험자가 대상자의 6.8%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흡입제는 3.0%, 중추신경흥분제는 1.8%, 환각제는 1.2%, 마약은 1.1%이었다. 이는 Joo와 Cho(1997)의 약물사용 전국 실태조사

<Table 5> Predictive Variables on Illicit Drug Use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	Odds Ratio Estimates
Intercept	-3.360	0.512	43.097	<.0001	
Individual-related factors					
Psychosomatic symptoms traits	1.180	0.249	22.464	<.0001	3.253
Self-esteem traits	-0.509	0.239	4.537	0.033	0.601
Fortune delinquent experience	0.624	0.245	6.515	0.011	1.867
Sexual-violence delinquent experience	0.920	0.352	6.852	0.009	2.51
Home-related factors					
Insincerity · threatness · assesment	0.693	0.232	8.906	0.003	2
Society-related factors					
Affection of friend	-0.954	0.396	5.803	0.016	0.385
Friend's attitude of delinquency	0.744	0.250	8.876	0.003	2.104

Note. -2 Log Likelihood = 657.366; Testing Global Null Hypothesis: $\beta=0$; Likelihood Ratio Chi-Square = 104.088, $df=7$, $p < .0001$; % correct predictions = 77.6 %; Sensitivity = 72.4 %; Specificity = 70.4 %; Nagelkerke's - R^2 = .201; Hosmer-Lemeshow Test Chi-Square = 3.2120, $df=9$, $p=.955$.

결과 신경안정제 3.6%, 본드 4.3%, 가스 4.1%, 각성제 11.0%, 환각제 0.6%, 마약 0.4%와 비교해 볼 때 중추신경흥분제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결과이다.

개인관련요인으로 건강상태, 정신·신체증상호소성향, 반사회적 성격,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일반지위비행, 재산비행, 성·폭력비행경험의 8가지 변인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정신·신체증상호소성향과 자아존중감, 재산비행, 성·폭력비행경험이 최종 예측요인으로 추출되었다. 특히 정신·신체증상호소성향은 7가지 예측요인 중 가장 높은 승산비를 보이고 있어 주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신체증상호소성향이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의 선행위험요인이나 핵심요인이라고 지적한 Han, S. H.(2000)의 보고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도 비치료적 약물사용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비치료적 약물사용의 일차적인 책임을 개인의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두었던 Cho(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재산비행, 성·폭력비행 경험이 약물사용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Lee, Kim, Chun, & Kim, 2002)와 일치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비행 경험의 경우 정신·신체증상호소성향 다음으로 승산비가 높게 나타나 영향력이 큰 위험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본드·가스 등의 약물은 냄새가 나고 지속시간이 짧아 좀 더 강한 효과의 약물로 이행하거나 사용량을 늘리게 되는데 이러한 약물구입 비용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절도 등의 재산비행으로 이어지거나, 약물에 만취된 상태에서의 각종 사고나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약물사용의 결과 재산비행이나 성·폭력비행이 발생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Cho, 2002). 따라서 재산비행이나 성·폭력비행경험은 비치료적 약물사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동시에 약물의 지속적인 사용에도 영향을 미쳐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의학적 약물사용을 근절시키는 것은 약물로 인한 비행 청소년들 뿐 만 아니라 기타 비행 청소년들의 비행률까지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시급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 비치료적 약물사용과 유관한 것으로 나타난 계열, 사회성향, 우울성향 성격특성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의 경우 약물사용 정도가 중독 수준에 도달한 대상자를 다루고 있어, 비치료적 약물의 단순사용까지도 포함한 본 연구와는 결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약물남용 청소년재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Chang(2000)은 대상자들이 약

물사용 후 죄책감으로 인해 우울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인관계를 하고자 하는 에너지나 동기가 결여, 결국 사회성마저 부족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가 비치료적 약물사용의 결과가 아닌 인과적 요인의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차이를 설명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과 관련된 가정관련요인으로 부모(주양육자)-자녀간 불성실·욕박·평가형 의사소통이 최종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치료적 약물사용 청소년의 경우 부모(주양육자)와 의견충돌이 잦고 부모의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주류를 이룬다는 연구결과(Han, A. S., 2000)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현재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기능적이지 못하다면 이 결과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게 될 소지가 높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주양육자)-자녀간 의사소통의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부모-자녀간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과 관련된 사회환경관련요인으로 친구에 대한 애착도와 비행에 대한 친구의 태도가 최종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친구에 대한 애착도와 비행행동에 대한 친구의 호의적 태도가 청소년비행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Lee, 1999)와 일치하고 있다. 사회환경관련요인 중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 만족도, 친구 필요도, 비행경험 친구의 수, 비행에 대한 친구의 압력, 약물구입의 용이성은 비치료적 약물사용군과 비사용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종예측요인에서는 제외되었다. 이는 결국 학교생활과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을 유도하는 인과적 요인은 아닌 것이며, 만약 학교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학생이었다면 현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본 연구대상에서 이미 제외되었을 것이다. 친구의 필요도가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과 유관하다고 보고한 Park(1998)의 경우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조사약물도 음주, 흡연으로 국한하고 있으며, 특히 이성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결과와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상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청소년에게 자아존중감과 친구에 대한 애착도를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은 비

치료적 약물사용의 예방과 관리의 핵심이 되며, 정신·신체증상호소성향, 재산비행, 성·폭력비행 경험, 불성실·음박·평가형 부모(주양육자)-자녀간 의사소통, 비행에 대한 친구의 긍정적 태도 등의 취약성을 낮추는 프로그램이 비치료적 약물사용 청소년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중재전략임이 더욱 더 명백해졌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포괄적인 분석을 실시,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예측요인을 구축하고자 시도되었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인문계와 실업계 남·녀 고등학교 학생 1,08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chi-square 검정과 t-tes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을 예측하는 최적의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개인과 관련된 요인 중 정신·신체증상호소 성향과 자아존중감, 재산비행과 성·폭력비행 경험이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을 예측하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가정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불성실·음박·평가형 부모(주양육자)-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사회환경과 관련된 요인으로 친구에 대한 애착도, 비행에 대한 친구의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본 연구에서 제시된 최종예측요인은 -2LL이 657.366이었고 likelihood ratio chi-square 값도 104.088(df=7, $p < .0001$)로서 주어진 자료에 잘 적합되었다. 또한 본 예측요인의 분류정확도는 77.6%이었고, Nagelkerke's R^2 값은 .201로 최종 예측요인에 선택된 각 요인들이 청소년의 비치료적 약물사용을 20.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모형은 서울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재의 일정한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대상자나 그 배경구조가 변화되면 모형자체의 수정이 요구되므로 향후 적용을 위해서는 반복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고등학교의 보건교사, 상담교사, 담임교사들의 경우 비치료적 약물사용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인 바, 이를 위해 본 연구도구의 적극적 활용을 권장한다.
3. 본 연구의 모형을 근거로 하여 예방 프로그램 및 비치료적 약물사용자에 대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비치료적 약물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 부모-자녀 간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포함한 그룹지도 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arnes, H., & Olse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 56*, 438-447.
- Chang, S. J. (2000). *A study on the personality traits of drug abuse adolescents being in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focused on MMPI-*.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an's University, Seoul.
- Cho, S. N. (2002). *2002' Drug abuse provide teacher training program*. Seoul: KAADA.
- Cho, T. H. (2000). *A study on drug abuse and the factors affecting drug abuse behaviors of students preparing college entrance or transfer examina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an University, Daegu.
- Chung, H. K. (2000). *A forecast model on runaway you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Davis, R. B. (1994). Intervening with high risk youth: A program model. *Adolescence, 29*(116), 763-774.
- Friedman, A. S., Glickman, N. W. I., & Kovach, J. A. (1986). The relationship of drug program environmental variables to treatment outcome. *Am J Drug Alcohol Abuse, 12*(1-2), 53-69.
- Han A. S. (200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environment and drug abuse*

- of juveniles-centering highschool students living in Ans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eoul.
- Han, S. H. (2000). *The current status and related factors of alcohol drinking and drug taking of Korean young adults*. Seo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Jang, H. S. (2001). *A study on the social causes and solution of juveniles' drug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 Joo, W. K., & Cho, Y. J. (1997). National survey on adolescent drug abuse. *Korean J Youth Stud*, 4(1), 169-181.
- Kim, K. B. (1997). A study on the early stage discovery of juvenile drug use and drug abuse. *Korean J Youth Stud*, 4(1), 209-223.
- Kim, J. H., & Park, M. S. (199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linquent friends and juvenile delinquency*. Seoul: KIC.
- Kim, J. H., & Park, J. S. (1995). *A research on juvenile drug abuse-in terms of smoking and drinking*. Seoul: KIC.
- Kim, J. H., & Lee, D. W. (1996). *The study on the juvenile delinquency scales in Korea*. Seoul: KIC.
- Kim, H. S., & Kim, H. S. (1998). Development of instrument for measuring personality factor related to juvenile delinquency. *Korean Acad Psychiatry Mental Health Nurs*, 8(1), 190-201.
- Kwon, M. Y. (1997). *The individual, familial, and peer-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drug-abuse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Lee, M. H., Kim, K. G., Chun, K. S., & Kim, J. J. (2002). *The survey on the juveniles' harmfulness environment in 2002*. Seoul: National Youth Commission.
- Lee, S. S. (199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linquent friends and delinquency. *Korean Institute Criminol*, 10(2), 193-221.
- Lee, Y. K. (2000).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ubstance-abuse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Lim, D. S. (199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parents and children of drug-abusing adolescents'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 Lim, M. H. (2002). *The effect of family and peer group on drug abuse behavior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Chunchon.
- Park, Y. S. (2002). *A crisis model for the early adolesc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Park, E. Y. (1998). *Research on the relations between drug abuse and friendship of you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eoul.
- Potter, D. A., & Perry, A. G. (1997). *Fundamentals of nursing(4th ed.)*. St. Louise, MO: Mosby.
- Rowlison, R. T., & Felner, R. D. (1988). Major life events, hassles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Confounding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and adjustment revisited. *J Personal Soc Psychol*, 55(3), 432-444.
- Straus, M. A. (1980). *Stress and child abuse*. In R. E. Helfe & C. H. Kempe(Eds.). *The battered child*. (pp 86-103).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uart, G. W., & Laraia, M. T.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6th ed.)*. St. Louise, MO: Mosby.
- Supreme Prosecutors' Office (2003). *Analytical report on crimes*.
- Yang, B. M., & Lee, T. G. (199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luence of juvenile drug abuse and economical damage. *Korean Health Econ Assoc*, 1, 161-184.

- Abstract -

Predictive Factors of Adolescents' Illicit Drug Use

*Kim, Hee Young**

Purpose: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lluminate danger signals through an extensiv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s' illicit drug use. On this basis, it built predictive factors of adolescents' illicit drug use. **Method:**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1,238 subjects living in Seoul, and of them 1,082 answers were analyzed using the SAS 8.2 program. Also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stepwise selection method for constructing the predictive factors.

Resul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dividual-related factors were psychosomatic symptoms, self-esteem, fortune delinquent experience, and sexual-violence delinquent experience. Home-related factors were insincerity, threatening and the assessment of the parent (rearer)-adolescent communication type. Society-related factors were affection of friends and friends' attitude toward delinquency. **Conclusion:** Thes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broad intervention program should be provided to nurture wholesome youth culture related to illicit drug use. It is also recommended that a variety of individual, home and society-related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drug users.

Key words : Adolescents, Illicit Drugs

*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